

홈 > 뉴스 > 기획 > 신탐라순력도

"자연 경관 지키는데 막중한 책임 느껴"

강웅선 대평리장

데스크승인 2014.02.24 좌동철 기자 | roots@jejunews.com



"3년 전부터 젊은 외지인들이 마을에 속속 정착하면서 활력을 얻고 있습니다."

강웅선 대평리장(50)은 "타지에서 온 정착 주민의 90%는 20대부터 40대까지 젊은층이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렇다 할 홍보를 하지 않아도 방문객들이 알아서 오는 것을 보면 마을 위상이 달라진 것을 새삼 느낄 수 있다"며 "관광객을 유치하는 원동력이자 마을의 가장 큰 자산인 자연 경관을 보존하는 데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다.

인구 유입과 관광객 증가로 대평리는 나날이 풍요로워지고 있지만 걱정거리도 있다. 마을 땅의

85%를 외지인들이 소유하면서 펜션과 카페 등 개발 붐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주민들의 소득 기반인 마늘밭은 점차 사라지고 있다.

강 이장은 "관광객 유입으로 각종 건축물이 들어서면 1년에 마늘밭 6000평이 사라지고 있다"며 "이 추세라면 10년 후에는 18만평에 달하는 마늘밭이 남아 있지 않을 것"이라며 씁쓸해했다.

그는 "주 소득원인 마늘밭이 사라지는 10년 후에는 주민들이 뭘 해야 할지, 뭘 먹고 살아야 될지 심각한 문제"라고 걱정을 했다.

강 이장은 "마을 전체가 관광 명소여서 자연 경관 자원을 활용한 소득 창출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며 "가까운 미래에 대평리가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각계에서 많은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을 맺었다.

© 제주신보(<http://www.jeju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